

불황에 '불금'도 집에서... 주택가 편의점 특수

〈불타는 금요일〉

평일대비 금요일 주류 매출 20~100% 늘어

싱글족 증가도 한몫... 편의점 수 급증 추세

회사 근처 원룸에 사는 직장인 강모(38)씨는 얇아진 지갑 사정으로 '불금(주5일제 정착으로 주로 금요일 매출이 증가) 이후 유흥을 즐기는 직장인이 늘면서 이들 사이에서 금요일 저녁을 즐기는 말로 불타는 금요일의 약자'가 아니다. 친구들과 만나자니 돈이 없고 허전한 마음에 주택가 근처 편의점을 찾아 맥주나 간식을 사먹는 경우가 잦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소비심리

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싱글족의 증가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주택가 편의점의 금요일과 주말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16일 CU(씨유) 등 편의점은 전국 주택가에 들어선 자체 점포의 요일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일주일 매출 중 금요일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CU의 주택가 편의점 금요일 매출 비중은 지난해 1분기 14.5%에서 2분기

14.7%, 3분기 15.1%, 4분기에는 15.2%까지 확대됐다. 또 올해 들어서도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3분기에는 15.4%로 토요일 매출 비중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작년 초와 비교하면 1%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주택가 인근 다른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의 한 편의점은 올해 여름을 기해 야외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야간에도 고객을 맞았는데 주변에 원룸촌이 형성되면서 금요일과 주말 손님이 부쩍 늘었다.

이들 편의점에서 금요일에 잘 팔리는 품목은 도시락과 라면, 냉동간편

식 등 야식거리와 함께 맥주, 와인 등 술 종류와 인주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목요일과 비교하면 금요일 맥주 매출은 20%, 와인은 무려 100% 이상 더 팔린다. 또 도시락과 냉동간편식은 10% 가량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라면과 생수 등의 판매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봉지면의 매출이 용기면을 추월하고 있고, 2L 대용량 생수 제품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매출 상승세에 힘입어 주택가 주변 편의점 입점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편의점협회 '2013년 편의점 연

영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광주·전남 편의점 수는 1364개에서 1568개로 1년새 204개가 증가했다.

업계는 경기불황속에서도 편의점의 신규 출점은 도심 원룸촌 주변과 신시가지에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금요일을 집에서 보내는 고객이 늘면서 주택가 입지 점포의 금요일 매출이 증가했다"며 "싱글족의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이러한 매출 상승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95%까지 대출

NH농협은행 광주본부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부행장보 이근)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최대 95%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NH전세자금대출'을 16일부터 판매 한다.

이런 상품은 하반기 입주를 앞둔 공공임대주택 1만 6000여 가구 입주 예정자들의 전세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 서민들의 전월세 고민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H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LH공사, SH공사 등)

에 해당되며 반전세 계약이나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3억 이내, 임차보증금의 95%이내까지 가능하다. 또한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0.3%p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10월 현재 최저 3.82% (COFIX 6개월 월중신규 기준)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도 확인하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농협, 농촌일손돕기 전남농협지역본부(본부장 박종수)는 16일 영암군내농협직원들로 구성된 행복나눔봉사단 40여명과 함께 영암군 미암면 세지리 지중마을을 방문해 고구마 수확, 선별현장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결혼 끝인 남자 표준 35세·연봉 4500만원

결혼정보회사 듀오 조사

결혼정보회사에서 짝을 만난 남자의 나이와 연소득이 7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최근 3년간 결혼한 초혼부부 6천명(3천쌍)을 표본 조사한 결과 결혼에 성공한 남성 회원의 표준모델은 35세·연소득 4500만원·4년제 대졸·키 173~174cm 일반 사무직이라고 16일 밝혔다.

여성 회원은 32세·연소득 3400만원·4년제 대졸·키 163~164cm 일반 사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2006년 조사보다 결혼 연령과 연소득이 각각 2세, 1200만원 높았다.

남성의 연소득은 4000만~4500만원이 22.2%로 가장 많았

고 3500만~4000만원(20.9%), 3000만~3500만원(13.8%), 4500만~5000만원(13.1%)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은 3000만~3500만원(25.7%), 3500만~4000만원(17.2%), 2500만~3000만원(16.0%), 4000만~4500만원(14.0%) 등 순이었다.

남편의 연소득이 더 높은 부부는 78.2%, 아내의 연소득이 더 높은 부부는 14.8%였다. 남편의 키가 더 큰 경우는 99.5%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의사·약사가 직업인 남성의 23.7%와 여성의 49%가 자신과 같은 의사·약사와 결혼하고 공무원·공직자 남성의 18.3%와 여성의 33.3%가 같은 직업의 배우자를 만나는 등 안정적인 전문직의 동질혼 경향을 보였다. /연합뉴스

시드는 금... 은행 골드뱅킹 '썰물'

가입자 급감... 골드바도 인기 없어

'대안투자'로 주목을 받던 은행 골드뱅킹(gold banking)의 인기가 시들해졌다.

골드뱅킹 부문에서 가장 앞선 신한은행의 금 실물매입 계좌 '골드리치(Gold Riche)'의 신규 가입은 올해 초 대비 약 3분의 1로 급감했다.

올해 1월 2516명이 가입한 이 상품은 지난해 833명이 가입하는 데 그쳤다. 환율과 금 시세를 고려한 원화 환산 잔액은 5063억원에서 4412억원으로 줄었다.

신한은행과 비슷한 국민은행의 'KB골드투자통장' 상품의 투자 잔액

도 지난 3월 말 450억원에서 지난해 말 413억원으로 감소했다.

우리은행의 '우리골드투자' 상품의 가입자 증가도 올해 초 매출 200~300명에서 최근 100명 안팎으로 줄었다.

계당 수천만원에 달해 극소수 부자의 채테크 상품으로 꼽히는 골드바(gold bar)도 마찬가지다.

골드바 판매를 가장 먼저 시작한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민감성을 고려해 실적은 밝힐 수 없지만, 최근 판매가 줄어든 것은 맞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시작된 국민은행 골드바

판매 실적은 초창기 하루 평균 4억원에서 최근에는 하루 평균 1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달 초 시작한 우리은행의 골드바 판매도 보름 가까이 됐지만,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욕은 최근의 금값 하락 때문이다. 물가상승 우려와 불황 가능성에 모두 대비할 수 있는 금의 매력도 최근 급격히 퇴색했다.

'금의 황금시대'를 구가한 2009~2011년 이후 국제 금값은 하락, 지난해 10월 온스(약 31g)당 1천800달러에서 지난해 1300달러로 30% 가까이 내렸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마른고추 1287t 수매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광주·전남 지역 2013년산 마른고추 비축 수매 검사를 16일 곡성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마른고추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판매 어려움에 부딪힌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우려는 조치다. 수매 물량은 18개 시·군에서 모두 1287t으로 전국 5800t의 22.2%를 차지한다.

수매 기간에 농업인이 보유한 마른고추를 지역농협을 통해 20kg 포대

단위로 수매한다.

1kg당 가격은 1등급 1만500원, 2등급 9500원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마른고추 내부의 심이 빠지는 등 품위 손상이 없으면 꼭지가 제거된 고추도 수매가 가능하다"며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 검정사규격을 확인하고 색깔이 변하거나 손상된 고추, 병충해를 입은 고추 등을 잘 선별해 수매 일정에 따라 출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방사능 여파 日 관광 꺼린다

이달 들어 2~5% 줄어

식단서 회·초밥 제외도

일본 방사능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으로 단체 관광객을 내보내는 국내 여행사도 비상이 걸렸다.

16일 관광 업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 유출로 방사능 공포가 계속되면서 일본으로 떠나는 단체 관광객의 발길도 이달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9월까지의 5일 간 이어진 추석 연휴로 일본을 포함한 해외 여행객이 급증했지만 10월은 시기상 비수기에다 '추석 특수'가 사라지면서 일본 여행을 떠나는 발길이 주춤하는 추세다.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일본행 여행객이 전년보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달에는 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방사능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으로 단체 관광객을 내보내는 국내 여행사도 비상이 걸렸다.

16일 관광 업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 유출로 방사능 공포가 계속되면서 일본으로 떠나는 단체 관광객의 발길도 이달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9월까지의 5일 간 이어진 추석 연휴로 일본을 포함한 해외 여행객이 급증했지만 10월은 시기상 비수기에다 '추석 특수'가 사라지면서 일본 여행을 떠나는 발길이 주춤하는 추세다.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일본행 여행객이 전년보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달에는 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위 규모인 모두투어에서도 10월 일본 여행객이 지난해 대비 1.6% 감소했다. 중소 여행사에서도 이달 들어 10~20% 가량 일본 여행 상품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사마다 앞다투어 방사능 우려를 덜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나투어는 일본 단체 관광 상품 가운데 식단에서 회나 초밥 같은 해산물 요리를 빼고 대체 메뉴로 육류와 뷔페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일본 주요 도시에서 있는 지사에서는 방사능 측정기로 수치를 파악해 실시간으로 분사에 보고토록 했다.

모두투어는 해산물 식단을 면류나 육류로 대체하는 동시에 일식 메뉴를 정해야 할 때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식당에 공급되는 수산물 원산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딩조끼 할인 판매

감작스런 날씨 변화를 보인 16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6층 패션매장에 패딩조끼가 선보였다. 활동성을 높인 캐주얼한 느낌의 '타이힐피커 데님' 패딩조끼는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기간 20만5000원에서 10% 할인된 18만4500원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감작스런 날씨 변화를 보인 16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6층 패션매장에 패딩조끼가 선보였다. 활동성을 높인 캐주얼한 느낌의 '타이힐피커 데님' 패딩조끼는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기간 20만5000원에서 10% 할인된 18만4500원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탐방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바른성사! 결혼성사까지...**

(백영숙 이사, 유경선 부행장 출연)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출업, 공공기관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광주서초초등학교출업, 전주고등학교출업]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31~45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女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7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8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70세 '무술산 여성' 희망 33~48세	女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57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3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